

“모든 길은 영어로 통한다”

끊임없이 확대·재생산되는 미국과 영어의 힘...

인터넷 시대 맞이해 영어의 세계어화 현상 더욱 가속화될 듯

함재봉 | 연세대 정외과 교수

영어가 세계어로 자리잡게 된 것은 영미의 군사력과 경제력 못지 않게 문화의 힘이 작용했다. 세계문학에 기여한 점, 영화산업의 발전, 학술담론을 주도하는 미국의 대학 등이 그 사례다. 이제 인터넷 시대에 영어의 세계 공용화는 당연한 현상이다.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우리 나름의 것을 가미하고 창조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화와 디지털화가 급속히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새삼 영어에 대한 관심과 분석이 분분하다. 특히 인터넷의 급격한 보급과 더불어 인터넷의 언어가 영어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영어의 가공할 힘에 대한 인식 또한 팽배하게 됐다.

그러나 영어의 세계어화는 인터넷과 세계화시대 도래 이전에 이미 예견됐다. 그리고 영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역시 오래 전부터 팽배해 있었다. 다만 최근의 국제정치와 경제 정세의 변화가 새삼 영어의 중요성을 깨우쳐줬을 뿐이다.

영어의 세계어화에 작용한 세가지 힘

그렇다면 영어가 세계어로 자리잡게 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여기에는 정치·경제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이 있다. 정치·경제적 측면을 우선 살펴보면, 대영제국의 오랜 세계제패, 그리고 연이은 미국의 세계최강국 부상이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은 특히 정치적으로만 세계를 호령한 것이 아니라, 산업혁명이란 인류사의 거대한 전기를 마련함으로써 그 이후 모든 국가들이 추구하는 발전의 방법과 방향을 설정해버렸다.

미국은 영국이 발명한 방식의 화석연료 산업

혁명(fossil fuel burning industrial revolution)을 대량생산 방식의 도입 등을 통해 완성시키면서 세계 최강국으로 떠올랐다. 그리고 이렇게 축적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양차 세계대전과 냉전을 승리로 이끌면서, 이제는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자리를 굳히게 됐다.

미국은 이에 더해 90년대 들어서면서 이전과는 다른 또 하나의 산업혁명을 일으켰는데, 이것이 바로 정보혁명 또는 디지털 혁명이다. 70~80년대를 통해 전통적인 산업혁명의 총아인 자동차·철강·화학 등의 분야에서 급격하게 국제경쟁력을 상실하던 미국은 사양산업의 해체를 단행함과 동시에 새로운 지식혁명의 기반을 착실히 쌓았고 그런 구조조정이 90년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실효를 거두게 된다.

이처럼 영어를 자국어로 구사하는 영국과 미국은 지난 3~4세기 동안 세계의 정치·경제적 구도를 규정하고 그 영향력을 끊임없이 넓혀왔다. 그러나 영어의 힘을 얘기하는데 정치·경제 차원에만 논의를 국한시킬 수 없다. 영어의 힘은 영국과 미국의 군사력·경제력에 못지 않은 문화의 힘에서 비롯됨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우선 영국은 세계문학계를 주도해왔다. 특히 중요한 것은 영국이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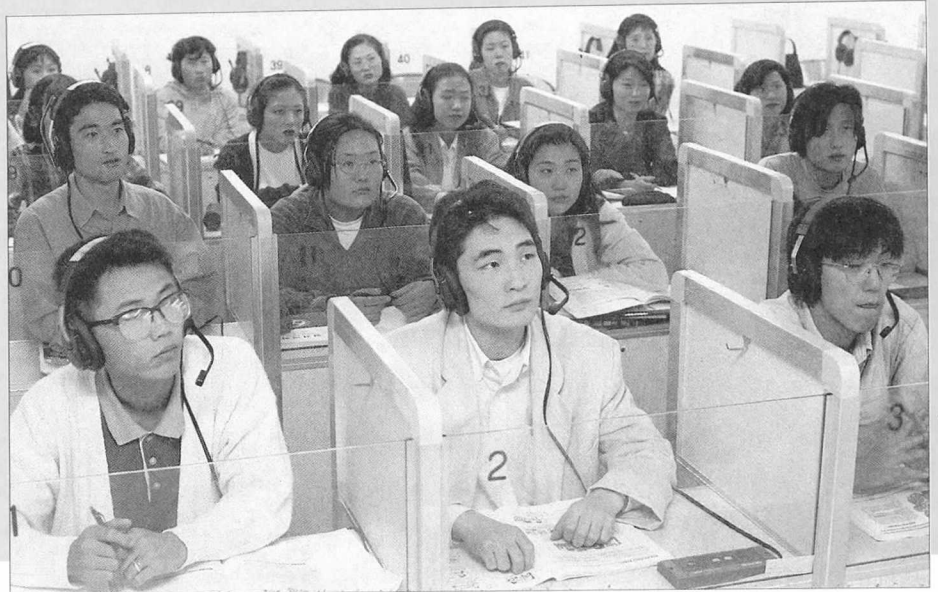
사회에 가장 걸맞은 새로운 형태의 문학을 발명했으니 그것이 곧 소설이다. 찰스 디킨스 등이 발명한 이 새로운 형태의 문학은 그 사실성, 사회비평 능력을 통해 현대문학의 주된 장르로 자리잡기에 이르렀다. 이 장르의 가장 중요한 저자의 대부분이 영어권 저자임은 물론이다. 오늘날 한국에서도 판매부수로 보나 영향력으로 볼 때 소설의 위치는 가히 절대적이다. 바로 이 소설이 영국의 발명품이고, 그 첫 언어이며 가장 중요한 언어는 영어다.

현대 대중문화는 영미의 발명품

현대의 문화를 얘기하는데 또 빼놓을 수 없는 부문은 영화다. 영화산업은 미국에 이주해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20세기 초반에 건설됐다. 그리고 이들이 건설한 할리우드의 영향은 ‘대중문화’(popular culture)라는 새로운 종류의 문화를 창출하면서 급속히 전세계를 제패해 나갔다. 미국의 영화산업이 발달하기 이전까지 문화란 어디까지나 글을 읽을 줄 알고 또 글이나 음악, 연극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여유(leisure)가 있는 특권층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말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할리우드는 전세계의 모든 계급과 성별, 인종이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장르를 발명하는데 성공했다. 전세계가 미국의 아카데미상 시상식을 같이 보면서 환호성을 올리는 현실 속에서 미국의 힘과 영어의 힘은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것이 미국의 대학문화다. 미국은 흔히 대중문화 또는 저급문화만을 생산하는 나라로 취급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이는 큰 오산이다. 미국이 분명 영화·대중음악

디지털 시대에 다양한 문명의 권역을 허무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영어다. 사진은 영어청취에 몰두하고 있는 대학생들. 사진제공 포토라마.



등 대중문화 전반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의 문화적 영향력은 고급문화권에서도 이미 절대적인 수준에 이르렀다. 그리고 미국의 고급문화를 대표하는 것이 대학이다.

미국의 대학은 이미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학생들이 선망하는 대상이다. 미국 우수 대학의 학위는 어떤 나라에서도 통용되고 인정받는다. 외국 문학과같은 특정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국제학술회의는 영어로 진행된다. 그토록 영어의 확산을 저지하고자 애쓰던 독일·프랑스 등의 학자들도 이제는 영어를 서슴없이 배우고 구사한다.

그리고 한국대학의 교수진은 갈수록 미국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다. 한국의 대학생들이 배우는 대부분의 사회분석 틀, 문화를 보는 눈, 세계관은 그들을 지도하는 교수들이 미국에서 배워온 것이다. 이는 대학 강좌에서 영어 원서를 쓰느냐 안 쓰느냐 하는 문제를 이미 넘어서었다. 한국의 학생들은 이미 미국적 시각을 배우고 있다.

인터넷 시대 영어의 세계화 과정

이제는 중국학·일본학·한국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도 미국에 유학해야 한다. 전세계에서 만주어를 아직도 가르치고 있는 곳은 하와이대학밖에 없어서 자신의 모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미국으로 유학했다는 얘기를 유학시절 만주계 중국인 학생에게 들었다. 우수한 미국 대학 도서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동양학 장서는 아무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방대하다. 그리고 동양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수준 또한 놀랍다. 따라서 이미 동양에 대한 연구조차 미국의 대학이 주도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처럼 미국의 그리고 영어의 세계제패는 모든 방면에

걸쳐서 이룩됐다. 정치적·군사적·경제적 최강국인 것은 물론 문화적으로도 대중문화·고급문화를 불문하고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 곧 영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그리고 이런 영향력은 막대한 힘과 양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공장들·자동차문화·대중음악·영화·소설, 그리고 교육과 학문의 태도와 방법, 양태는 모두 미국에서 개발된 것들이다. 포드식 대량생산방식을 현대와 대우자동차가 차용하고 있듯이, 영화기법과 음반제작기법이 미국 것을 철저하게 따르고 있듯이, 소설의 주제와 방식, 대학강의와 학술회의의 주제와 방법 역시 미국의 것을 배우고 있다.

이제 우리는 디지털과 인터넷의 시대를 맞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시대도 미국이 연 시대다. 그리고 그 언어 역시 영어다. 또, 우리는 인류역사상 초유의 세계화 과정을 겪고 있다. 과거에는 교통과 통신의 어려움으로 세계가 몇몇 문명권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은 이런 문화적 권역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문명, 문화의 권역을 허무는 가장 강력한 힘, 무기가 곧 영어다.

이런 상황에서 영어의 세계 공용화는 당연한 현상이다. 그리고 앞으로 영어의 지배력 또한 더욱 확산될 것이다. 우리가 정치·경제·문화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우리 나름의 것을 가미하고 창조하는 힘을 기르는 길밖에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나름의 것을 창조하는 것 역시 미국과 영어의 세계를 완벽하게 소화해낸 바탕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이다.●